

# ‘학문적 성취’ 추구할 시간이 없다(?)

글 | 박수경 \_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 sukyungp@kaist.ac.kr

**최** 근 서울공대 교수 공채에 지원한 40명의 지원자들이 무더기로 탈락했다는 기사가 이슈화됐다. 지원자들의 탈락사유에 관한 질문에 한 공대관계자는 “‘부적합’ 판단 사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원자들의 학문적 성취가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혹자는 그 동안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공대에 지원하지 않은 결과가 이제야 가시화되는 것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유학한 인재들이 고국으로의 귀향을 꺼리는 추세로 인한 인재풀귀현상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 연구·강의에 매진할 수 없게 하는 수학 현장

또한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공대에서 서울공대로 이직한 교수 두 분의 인터뷰에 관한 기사에서는 그들이 겪은 미국·캐나다와 국내에서의 연구·교육 여건에 대한 비교를 통한 현실 진단을 하기도 하였는데, 연봉, 연구비 수주액, 강의로드 등의 차이를 떠나 필자가 주목한 것은 연구의 업무에 쏟아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였다. 미국·캐나다에서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던 상황에 비해 국내에서는 각종 위원회 회의 및 입시 등으로 인한 업무가 너무 많아 연구와 강의에 매진할 수 없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의 공대에 몸담으며 대학원 학생들에게 ‘학문적 성취’를 지도하는 교육자의 일원으로서 필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았다. ‘나는 학생들에게 대학원 수학기간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연구주제의 발굴과 고찰에 대해 지도하면서 그들이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질문에 대한 대답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듯하다. 이는 학문적 성취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문제일텐데, 필자가 느낀 한국과 미국 대학원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연구 및 연구와 관련된 제안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훈련(?)이다. 미국 대학원생들과 달리 국내 대학원생들은 수행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하여 논문 및 학회지 저술활동 외에도 수행연구와 관련된 계획서, 보고서 및 자료 작성에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물론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성격이 학위논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보고서 및 자료작성이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연장선상에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학술지 등과는 달리 제출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읽혀지는 성격이 아닌 각종 자료와 보고서 작성에 쏟는 시간이 그리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행정업무의 로드는 연구비의 총액과 상관없이 연구 수행 건수에 비례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연구자들은 대형과제나 중장기 과제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대형과제나 중장기 과제 역시 다수의 연구자들의 협업에 의한 경우 연구가 대부분 이어서 연구 외에도 과제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로드가 고스란히 해당 연구책임자(교수) 및 연구원(학생)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과제수행에 따른 각종 행정업무는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연구와 강의’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대학의 조교수로 지원하는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라 함은 박사과정중의 연구업적과 학위후 박사후 연수과정 등을 통한 연구업적 등으로 구성되는데, 박사과정 중에 탁월한 업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의 제공여부와 연구외의 행정업무에 투입된 시간과의 상관관계가 없다면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 연구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원 수학기간 중의 과제제안서나 보고서 등의 관련업무 수행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대학원 수학기간 및 박사후 연수과정 동안 앞서 언급한 과제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필자로서는 처음 국내에서 과제제안서를 작성할 때 느꼈던 난감함과 어려움을 기억한다. 국내 연구현장에서 거의 업무분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과제관련 업무에 대한 훈련 없이 초반 고전을 거듭했던 것이 소위 필자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 시간 안에 교육할 수 있고 교육 받을 수 있는 분량 또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구와 연구수행에 관련된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하고,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대학원 수학기간 중 학생들이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고 배울 수 있다. 이는 학위 후의 연구활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위 후 연구에 투입된 젊은 연구원들은 학위과정을 통해 추구한 학문적 탁월성을 현장에서 접하는 연구분야와 접목을 시도해야 하고,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해야 하며, 그 분야에서의 진문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비해 실무상에 있는 젊은 연구진들은 과제기획, 제안서 및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이러한 시간분배의 비율을 고려해 본다면 과연 5년 후, 10년 후 이들이 국내 과학기술 전문가로 간주될 그 시점에서 그들의 '기술적 성취'의 부족을 누가 배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자로서 연구보다 연구외 업무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구자의 업무만족도가 높을 리 만무하고, 이는 과학기술자 스스로

과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 ‘학문적 성취’를 도울 시스템 아쉬워

과제수행과 관련한 각종 행정업무는 연구진행의 적합성, 공정성 및 투명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좋은 취지로 도입된 각종 제도와 자료에 대한 요구의 이면에 파생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연구자의 연구환경은 정부의 R&D 지원 증가로만 해결될 수는 없다. 현재의 과제관리 체제하에서는 늘어나는 R&D 지원을 받기 위해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과제기획, 설명회, 제안서, 보고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필자는 학생들에게 대학원 수학기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연구주제의 발굴과 고찰에 대해 지도하면서 그들이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글쓴이는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을 겸임하고 있다.